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 사랑

홍성민/보석 디자이너 eros@jewelbutton.com

남

자와 여자가 성장을 하여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가장 큰 행사가 결혼이다. 결혼은 가정을 이루게 되는 공식적인 선언이며, 자녀를 갖게 되고 개인의 역할이 아들이나 딸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의 전환인 것이다.

두 개인의 결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회적 결속보다 강한 힘을 지니게 된다. 그것인 가정인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여 결혼반지를 사용하였고 그것은 동양과 서양 모두의 오랜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다.

결혼반지의 기원은 고대 로마시대부터다. 초기의 결혼반지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이 아닌 두 사람의 관계를 강하게 연결시킨다는 의미로 철로 반지를 만들었다.

당신의 결혼은 애정보다는 사회적 계약을 의미하였고, 결혼반지는 상호간의 의무교환을 약속하는 상징물로 여겨졌다.

교회의 권위가 존중되면서 결혼 또한 크리스티교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유럽의 대부분을 점령했던 게르만의 세계에서는 집단혼이 일반적이었고, 크리스티교의 일부일처제는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는 결혼을 통해서 교회의 이념과 크리스티교의 보급을 꾀하였다. 교회에서 신 앞에 맹세하는 결혼서약 즉 “부부는 죽음이 그들을 갈라 놓을 때까지 일평생을 함께 한다.”는 맹세를 하게 했고, 그 상징물로 교회의 권위를 구체화시킨 것이 결혼반지였다.

이렇게 시작된 결혼반지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로맨틱하고, 개인의 삶의 모습이 가장 잘 반영된 상징물이 되었다. 신성함을 나타내는

원손 약지가 그 결혼 반지가 자리하는 위치가 있었고, 보석을 박아 넣어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의미하였다.

결혼반지에는 두사람의 사랑과 염원이 담겨져 있다.

다이아몬드의 영원함과 진주의 순결, 루비의 열정, 사파이어의 성실, 에머랄드의 행복은 신부에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보석의 의미지만, 몇 캐럿인가, 얼마 짜리인가를 앞세운다면 그 것은 보석이 주는 아름다움이 아닌 세속적인 형식의 굴레일 뿐이다.

나는 여러해 전에 커플반지를 창안하였다. 커플반지는 우리의 정서와 많은 공감을 이루어 젊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커플반지는 우리 가락지에서 그 기원을 착안하였다. 가락지는 두 개의 고리가 한 쌍이다. 그 두 개의 고리를 나눈 것을 반지라고 한다. 그런 나눔의 뜻 위에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여 탄생한 것이 커플반지다.

얼마 전 노부부의 금혼식 반지를 디자인 하였다. 50년을 살면서 가정과 가족을 위하여 노력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 반지를 디자인하면서 구도자의 경건함까지 느낄 수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담긴 반지는 두 사람이 위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는 마스코트가 될 것이다. 결혼은 약속이다. 그리고 결혼반지는 스스로를 구속하면서도 행복해지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아름다운 수갑이다. **PPFK**